

전북교육감 선거 '도덕성 공방' 격화

전주교대 이경한 교수, 이남호 예비후보 공개 지지 선언... 천호성 예비후보 둘러싼 표절 논란 재점화

전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전주교대 이경한 교수가 이남호 예비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하면서, 선거 구도간 정책 경쟁을 넘어 후보 자질과 도덕성 논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특히 천호성 후보를 둘러싼 연구비와 표절 논란이 재점화되며 교육계 인력의 공방이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 교수는 17일 지지 선언에서 "전북 교육은 과거의 관성을 벗고 미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AI 시대에 맞는 교육 혁신을 설계하고 실행할 책임자는 이남호 후보"라고 밝혔다. 이어 기초문해력과 디지털·AI 역량 문제해결력, 진로설계 능력 등을 강조하며 교육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언의 무게는 교육 철학을 넘어 도덕성 문제로 이어졌다. 이 교수는 "교육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영역"이라며 "정직성과 공정성이 무너지면 어떤 정책도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현재 제기된 논란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되며, 특정 후보를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는 평가다.

실제로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이 교수는 "지지 선언 자체가 현 상황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다"고 밝히, 자신의 선택이 곧 후보 평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연구년제 활용 논란과 관련하여서는 "제도의 취지와 책임을 어떻게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전주교육대학교 이경한 교수(사진 왼쪽)가 17일 이남호 예비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게 인식하느냐가 본질"이라며 교육자의 높은 윤리 의식을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불거진 천호성 후보 관련 논란과 맞물리며 파장을 키우고 있다. 천 후보는 연구비 수령 여부와 관련한 발언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였으며, 표절 의혹까지 더해지며 자질 공방의 중심에 서 있다.

논쟁의 핵심은 '책임 인식'에 대한 시각 차이다. 일부에서는 "연구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반환하면 된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비판 측은 "반납을 전제로 제도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제도 악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금전 반환으로 책임이 해소된다는 인식은 공직 후보자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토론회 발언을 둘러싼 사실관계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연구비 수령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두고 자질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선거법 위반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있다.

표절 의혹 역시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천 후보 측은 일부 사례만

을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소수라 하더라도 학자로서 용납되기 어렵다"며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고 있다. 공약집 등 공식 자료까지 논란 대상에 포함되면서 도덕성 문제는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해 천 후보 측은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연구년제 활용 역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남호 후보는 "이번 지지를 전북 교육을 보다 정직하고 공정하게 바꾸려는 요구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으로 전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이번 선거가 단순한 정책 경쟁을 넘어 교육자의 윤리성과 책임 의식을 검증하는 시련대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는 인지도 중심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선거가 본격화될수록 도덕성 논란이 핵심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다만 의혹과 반박이 반복되며 유권자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교육 현장의 신뢰 회복이라는 본질적 과제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이번 선거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오상근 기자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전주시그니처호텔이 17일 전주캠퍼스 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생 인턴십과 현장실습을 중심으로 한 실무형 교육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실무형 인재 양성 '맞손'

우석대 산학협력단, 전주시그니처호텔과 협약 체결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전주시그니처호텔이 산학협력 활성화와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17일 전주캠퍼스 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생 인턴십과 현장실습을 중심으로 한 실무형 교육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정희석 산학협력단장과 김훈 전주시그니처호텔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산학협력 관련 기술 및 경영 자문과 공동연구를 비롯해 인력·시설·장비 공동 활용, 학생 인턴십 및 현장실습 운영, 교원 산업체 연수, 산학협력 세미나와 특강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학생 취업 지원과 공동 프로젝트 수행, 산업체와의 기술개발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정희석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현장 경험과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산업체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산학협력 성과를 높이고 지역 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훈 대표 역시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호텔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다양한 공동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대학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도내 6개 권역

진로진학센터 주간 상담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진학 고민 해소를 위해 권역별 상담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전북교육청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도내 6개 권역 진로진학센터에서 주간 상담 서비스를 상시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상담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완주 등 6개 지역에 설치된 진로진학센터에서 진행된다. 각 센터에는 전문 인력 배치돼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진로 목표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은 하루 총 5회차로 운영되며,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시간대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주요 상담 내용은 대학 및 학과 선택을 비롯해 학생부종합전형 대비 전략, 고교학점제에 따른 과목 선택,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학습 방법, 면접 준비 등이다.

도내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 등 진로·진학 상담을 원하는 누구나 진로진학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상담 운영을 통해 공교육 기반의 진학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학생맞춤통합지원위 정기회의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이 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 단위 통합 협력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전주교육지원청은 17일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생 지원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 3월 1일 시행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따라 마련된 것. 이날 회의에는 체선영 교육장을 위원장으로, 전주시청과 덕진경찰서, 학교 대학, 청소년상담기관 등 교육·복지·상담·법률 분야 전문가 13명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는 학생 지원이 학교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 단위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어 적절한 기관과 자원을 연결하는 협력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오상근 기자



로봇 세계대회 출전 학생 격려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이 16일 2026 로봇 프로젝트 세계대회 FL'에 한국 대표로 출전하는 학생들을 격려했다.

AI·디지털 활용 선도학교 확대... 미래형 교육 체계 구축

전북교육청, 올해 총 100곳 선정... 작년보다 33곳 늘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반 교육 확산을 위한 선도학교를 대폭 확대하며 미래형 교육 체계 구축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초등학교 48개교, 중학교 24개교, 고등학교 26개교, 특수학교 2개교 등 총 100개교를 'AI·디지털 활용 선도학교'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7개교보다 33개교 늘어난 규모다.

AI·디지털 활용 선도학교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해 학생

맞춤형 교육 우수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운영된다.

선정된 학교에는 AI 기반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 활용, 교수·학습 자료 개발,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규모에 따라 평균 3,50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특히 이들 학교는 전북형 AI 교수학습 플랫폼 'AIEP'를 시범 적용해 인공지능 플랫폼 정착을 돕고, AI·디지털 기반 수업 사례 발굴과 수업 나눔 등

현장 중심의 교육 혁신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전북교육청은 향후 선도학교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우수 사례집 발간과 성과 보고회 등을 통해 성공 모델이 다른 학교에도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장기영 미래교육과장은 "AI·디지털 선도학교는 교실 수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끄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며 "학생 개개인이 최적의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수능 영어 난이도 상승 대응... 실전형 독해 프로그램 추진

전북교육청, 도내 중·고교 50개 팀 공모·선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수능 영어 난이도 상승에 대응하고 공교육 중심의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 실전형 영어 독해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전북교육청은 '중등 수능 실전형 영어독해형 향상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내 중·고등학교 50개 팀을 공모·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높아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난이도에 대비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글로벌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프로그램은 '수능 실전형 독해력'과 '고난도 문항 대응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다.

특히 수능 지문 독해를 비롯해 연계 교재와 학습적 지문 읽기 등을 통해 실제 시험과 유사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운영 방식은 학교별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학생 중심의 온·오프라인 영어 원서 및 수능 지문 독해를 기반으로 한 학습 동아리 형태와, 수준별 맞춤형 독해 및 문제 해결 중심의 방과후 수업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하게 된다. /오상근 기자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환영"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학원법 개정에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를 금지한 학원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가를 포함한 이른바 '레벨테스트'가 제한되면서, 유아 대상 선발 경쟁 관행에 변화가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의 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영정지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천호성 예비후보는 17일 논평을 통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영유아 조기 경쟁을 유도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학원에서 반편성이나 원생 모집을 목적으로 실시해 온 시험 형태의 평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필고사와 구술형 평

천 예비후보는 "배움의 출발점이 시험과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유아기 교육은 놀이와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돕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이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며 호기심을 키울 수 있는 공교육 환경 조성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학업 중단 위기 학생 위한 대안교육

전북교육청, '꿈누리 교실' 운영... 정서 회복 등 중심 구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부적응 등으로 학업 지속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대안교육지원센터

를 '꿈누리교실'을 개설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꿈누리교실'은 학업에 흥미를 잃거나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단기 위탁교육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최소 2주에서 최대 3개월까지 참여하며, 학교 복귀와 안정적인 적응을 목표로 맞춤형 교육을 받게 된다.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정서 회복과 학습 동기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마음치유 중심의 특화교육을 비롯해 개인별 수준에 맞는 교과 및 대안교육,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등이 운영된다. /오상근 기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소속 학교를 통해 대안교육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프로그램이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교육 내에서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꿈누리 교실이 학생들이 잠시 숨을 고르며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나아가 힘을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모든 학생이 소외되지 않고 각자의 속도에 맞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